

광주시 장애인탁구팀 6명 전원 국가대표 발탁

내년 도쿄 패럴림픽 대표 확정 전원 메달 목표 담금질 박차

광주시 장애인탁구실업팀 선수 6명 전원이 2021 도쿄 패럴림픽 국가대표로 확정됐다. 7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탁구연맹(ITTF,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이 내년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 선수 16명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 선수 6명이 포함됐다.

태극마크를 단 광주시 선수는 남기원(1체급), 박진철(2체급), 김성갑·김영건(4체급), 서수연(2체급), 김성욱(7체급)이다.

광주시 선수단은 그동안 세계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맹활약했다. 2016년 리우패럴림픽 탁구종목에서 대한민국은

모두 9개 메달을 획득했으며, 광주 선수들은 절반이 넘는 5개의 메달(금1, 은1, 동3)을 따냈다.

광주 선수들은 내년 올림픽에서 전원 메달 획득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

서수연은 2021 도쿄패럴림픽에서는 2개 이상 금메달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지난 올림픽에서 개인전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광주선수단은 오는 8월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 입소, 금빛 담금질에 들어간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도쿄 패럴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국가대표 확정과 소집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양국 3명(김란숙·김옥금·조장문)이 도쿄 패럴림픽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사격실업팀은 하반기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장애인탁구실업팀 선수들. 왼쪽부터 김영건, 박진철, 김성갑, 남기원, 서수연, 김성욱.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여대 안산 6관왕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



대학실업양궁대회 혼성단체전에서 정상에 오른 안산(오른쪽)·이진용(조선대).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광주여대 안산시 제35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6관왕을 달성했다.

7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안산(1년)은 지난 4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대학부 70m(342점), 60m(347점), 50m(351점), 30m(360점)와 혼성단체전, 단체전 등 6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산은 50m에서 2015년 김경은이 세운 세계신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30m와 싱글 라운드 종합(30m·50m·60m·70m 합계점수 1440점)에서는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다.

지난달 21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0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태극마크를 지닌 안산은 성인 무대 데뷔전인 지난달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양궁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한국 여자양궁 주역으로 부상했다.

안산은 "7관왕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놓쳐 아쉽기는 하지만 '사대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대회는 나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안산은 "기보배(광주시청), 최미선(순천시청) 선배의 뒤를 이어 전국 최강에 빛나는 광주여대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성 문향고 조정 시즌 첫 대회 종합 준우승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 금 2·은 1·동메달 1 획득

장성 문향고 조정팀이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문향고등학교 조정팀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제14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했다.

문향고는 강원도 화천 화천호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종합점수 44점을 따내 46점을 획득한 예산여고에 이어 여고부 종합 2위에 올랐다.

준우승의 주역은 김미수(2년), 김하경, 김보민

(이상 3년)이다.

김보민과 김미수는 경량급 더블스컬에서 8분2초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김미수는 경량급 싱글스컬에서 8분12초62로 가장 먼저 끝인,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향고의 금빛 물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하경이 싱글스컬에서 8분0초3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했고, 김보민과 김하경은 더블스컬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문향고가 코로나19로 사태 등 열악한 환경에도 투혼을 발휘해 종합 준우승이란 성과를 일궈냈다"고 격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향고 조정팀이 제14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기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수, 김보민, 김하경. <전남도체육회 제공>

“뺨 때리고 볼에 뽀뽀하고”... 팀 닥터 추행 의혹도 불거져

고 최숙현 동료들 잇단 피해 진술 여자선수 숙소 무단 침입 음주도 철인3종협회, 법적 절차 밟기로

고(故)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취 파일에 가장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이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이 '팀 닥터'라고 부르던 안주현 씨다.

최숙현 선수가 고종 속에 세상을 떠나고, 추가 피해를 당했거나 폭행 장면 등을 목격한 전·현직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용기를 내면서 거짓으로 쌓은 안씨의 권위도 조라한 민낯을 드러냈다.

피해 진술이 이어지면서, 안씨의 추행 의혹까지 커졌다.

전설적인 핸드볼 선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추가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안씨의 폭행과 추행 정황을 발견했다.

피해자들은 자발로 "2017년 여름, 경산 숙소에서 안씨가 술에 취해 제 뺨을 때렸다", "2019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 안씨가 대량의 음주를 한 뒤 여러 사람을 구타하고 폭행, 욕설, 비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추행 정황을 전한 피해자도 있다.

한 선수는 "(안씨가) 갑자기 자기 방으로 불려서...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시면서 뺨을 두 차

레 때렸다 갑자기 또 웃으면서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고 예뻐했는데 하시면서 볼에 뽀뽀하셨다..."라고 썼다.

"팀 닥터 선생님과 11월 말~12월까지 치료, 보강 훈련을 이유로 만났는데 훈련과정 중에 수영 동작을 알려주시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쪽 손으로 본인 목을 감아서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끌어안을 때처럼 끌어안으라고 하셔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여자 선수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사례도 있었다. 한 선수는 "저녁을 먹었는데 말도 자주 했다. 7시 30분이 넘었는데 와인 한 병을 들고 오셔서 혼자 드셨습니다. 저희 둘밖에 없는 여자 숙소라서 저희는 아니다 싶어 감독님께 말씀드렸다"라고 진술했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추가 피해자도 "팀 닥터는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도 자주 했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수집한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 진술에도 안씨의 폭행, 추행 정황이 꽤 많이 담겼다.

선수 대부분이 안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씨는 의사 면허도,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는 운동치방사였다.

6일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안씨를 징계하지 못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 피해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안씨는 공정위 징계 대상 범위에 있지 않아서 규정상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별세, 우리들

공정위는 "안씨는 공정위 징계 대상 범위에 있지 않아서 규정상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인3종협회는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안씨를 처

전국체전 1년 순연 확정 대한체육회, 소년·생활체전도

대한체육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올해 전국체전 개최 지방자치단체인 경북을 포함한 5개 지자체가 3일 전국체전 1년 순연에 합의한 후속 조치다.

체육회는 이사회와 사법부 협의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전국체전 순연을 확정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전국체전 개최 1년 순연을 차기 전국체전 개최 지자체에 요청했다.

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울산시를 필두로 전남(2022년), 경남(2023년), 부산시(2024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올해 경북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대응적인 양보와 타협으로 전국체전을 1년씩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체육회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취소된 31회 전국체전을 대회 횟수에 포함하고 1951년 대회를 32회 대회로 개최한 사례를 들어 내년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102회 대회로 치르기로 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밤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 2관 #살아있다
- 3관 원 데이, 위대한 쇼맨, 인베이션 2020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코드 8
- 4관 그레텔과 헨젤
- 5관 #살아있다, 밤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다크 나이트 라이즈, 인생 후르츠
- 6관 다시 태어나도 우리,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별세, 우리들
- 9관 소리꾼, 침입자
- 7관 씨네카를 #살아있다, 침입자
- 8관 씨네카를 결백, 시, 나리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4
박주원의 방랑예찬
2020. 7. 22(수) 11: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자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창작발레 오월바람
2020. 7. 29.(수) ~ 30.(목)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FOCUS V
동화음악회 - 책으로 뽕을 뉘는 돼지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